

가구유형별 양육비 지출의 격차와 정책과제

Family Type and Childcare Expenses



김연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본고는 가구유형별 자녀 1인당 양육비 지출실태를 자녀연령 및 소득계층을 고려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향후 아동의 능력 및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짓는 문화활동, 학습에 대한 투자정도를 보기위해, 교양오락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지출실태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 기초수급가구는 전국 가구 평균치보다 낮은 자녀양육비를 지출하며, 심지어 기초수급가구는 전체 평균치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다. 또한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 기초수급가구의 교육비(공교육비와 사교육비의 합)는 청소년기에 특히 적어 이는 향후 낮은 교육수준을 야기할 수 있다.

1. 서론

자녀양육비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인으로, 모든 아동은 가족배경과 관계없이 적정수준의 자녀양육비를 제공받아야 한다. 자녀양육비는 모든 아동의 동일한 출발선상에서의 시작을 가능케 함으로 아동권리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아동은 향후 생산적인 경제활동인구로 성장하여 사회를 이끄는 주요한 동력으로, 적정수준의 자녀양육비는 사회·국가적 측면에서도 매우 강조

되어야 한다.

아동투자관점(the investment-in-children)은 아동 발달을 위해 다양한 요인이 직·간접적으로 투자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일부 요인을 경제적 투자 측면에서 설명한다.¹⁾ 부모는 자녀의 교육, 훈련 등에 경제적으로 투자를 하며, 투자의 양과 질은 가족의 경제적 상태에 따라 다르다.²⁾ 일부 가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동의 기본적인 의식주 외에 인적자본 등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하여 생계를 유지할 것이며, 이와 같은 아동에 대한 소극적 투자는 계속적으로 축적되어 향후

1) Haveman, R. H. & Wolfe, B. S. (1994). The Determinants of Children's Attainments: A Review of Methods and Finding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3, pp.1829~1878.

2) Becker, G. S., and Tomes, N. (1976). Human Capital and the Rise and Fall of Families. *Journal of Labor Economics*, 4(3), pp.S1~S39.

아동의 능력을 결정하게 된다.³⁾ 즉, 일부 아동은 낮은 투자로 건강한 발달·성장을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아동권리적 측면과 사회·국가적 측면에서 매우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고는 가구유형별 자녀 1인당 양육비 지출실태를 자녀연령, 소득계층별로 살펴본다. 본 고에서 활용한 원자료는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로, 해당 조사는 2012년 자녀양육비를 세부 항목별로 알아보았다. 양육비 조사대상은 해당 조사의 대상가구가 책임지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이며, 동거자녀 뿐만 아니라 비동거자녀도 포함하였고, 가구가 양육을 책임지고 있다면, 조손가정의 손자녀도 조사대상이다. 또한 아동이 18세 이상이라 할지라도 재수생과 대학생을 포함하였으며, 휴학 중인 경우도 취업을 하고 있지 않다면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⁴⁾.

본 고에서는 자녀양육비를 월평균 총 자녀양육비와 세부 항목 중 교양오락비, 공교육비, 사교육비별로 살펴본다. 이들 세 항목을 추가적으로 살펴보는 이유는 이들 항목이 향후 아동의 능력 및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짓는 문화적 지식, 학습에 대한 투자정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에 본 고는 총 자녀양육비와 교양오락비, 공교육비, 사교육비에 대한 지출현황을 통해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이 현 사회에서 가능한지 살펴보고, 향후 가족배경의 대물림 현상을 예측하고자 한다.

2. 양육비의 개념

자녀양육비는 주거 및 광열·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 소비·비소비지출비, 식료품비, 피복비, 보건의료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등 10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전자 5개 항목은 가족 공동비용, 후자 5개 항목은 자녀 개인비용으로, 자녀 개인비용은 각 자녀별 지출액을 각각 질문하여 파악한 금액이다.⁵⁾

항목별 개념을 살펴보면, 첫째 주거 및 광열·수도비는 주택설비 및 수선비, 공동주택관리비, 수도요금, 전기요금, 난방연료비(도시가스, 기름) 등을 말한다. 둘째, 가구집기·가사용품비는 일반가구, 가정용기기, 식기 주방용품, 침구 및 직물제품, 실내장식품(커튼 등 포함) 등을 일컫는다. 셋째, 교양오락비란, 신문, 잡지, 도서, 교양오락기구(TV, 오디오, 컴퓨터 등)구입, 극장입장료, 스포츠관람료, 스포츠타 시설 이용료, 문화시설 입장료, 교양오락강습료, 사진대, 단체여행비, 완구 및 오락기기 구입 등을 가리킨다. 넷째, 교통통신비는 공공교통비, 개인교통비(자동차 구입, 연료비, 정비수리비, 자동차보험료 등), 통신비(일반전화, 이동통신, 인터넷 및 PC 통신이 용료, 기타 통신), 스쿨버스비 등을 말한다. 다섯째, 기타 소비·비소비지출비는 담배, 술, 이·미용비(목욕비 포함), 장신구(가방, 핸드백 등)구입비, 종교관계비, 회비 및 교제비, 경조금, 기타

3) 이봉주(2006)는 국내의 연구들을 통해 가족배경이 인적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사회에서 지속되거나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함. 자세한 내용은 이봉주(2006)의 “인적자본과 불평등,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참조.

4) 김승권 외(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김승권 외(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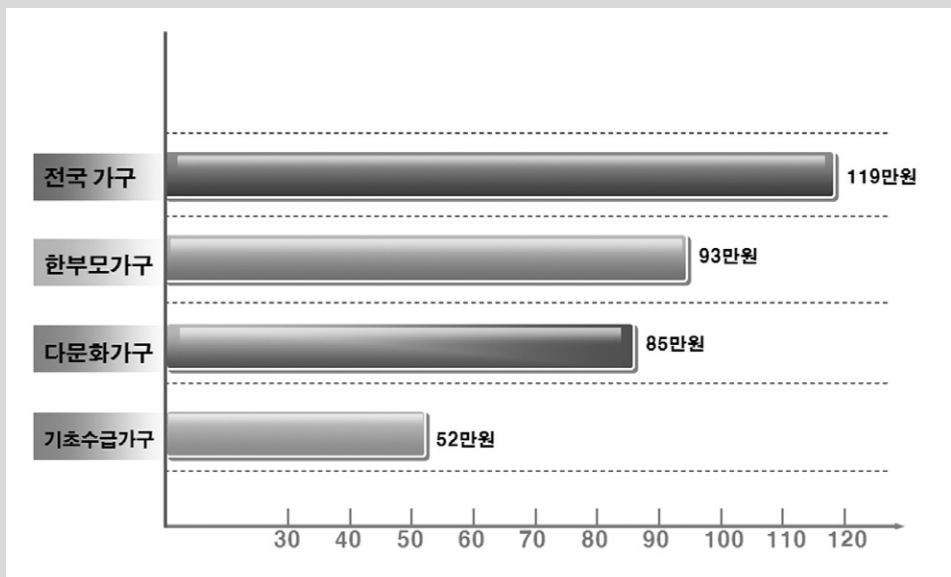
잡비(용돈 등) 등을 일컫는다. 여섯째, 식료품비란, 곡류, 육류, 낙농류, 어패류, 채소, 해조류, 과일류, 조미료, 빵 및 과자류, 외식비(학교급식비 포함), 각종 이유식 등을 말한다. 일곱 번째, 피복비는 외의, 스웨터, 셔츠, 내의, 직물, 기타 피복, 신발 등(양말, 모자, 운동화, 교복, 종이기저귀, 세탁비, 수선비 등)을 의미한다. 여덟 번째, 보건 의료비는 의약품, 보건의료용품·기구(안경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비 및 입원비, 영양제, 한약제 등)를 일컫는다. 아홉 번째, 공교육비는 유치원비, 초·중·고등학교 납입금, 대학등록금, 교재비(교과서 및 기타 학교교재, 참고서, 학습용 테이프), 문방구비를 말한다. 열 번째, 사교육비는 개인과외, 학원과외, 학습지 방문지도, 피아노·미술·기타 예능계 학원 등을 말한다.

3. 자녀 1인당 양육비 지출실태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는 한부모가구 92만 7천원(전국 가구의 78.0%), 다문화가구 84만 5천원(전국 가구의 71.1%),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51만 8천원(전국 가구의 43.6%)이다. 이들 가족은 전국 가구보다 매우 낮은 비용을 자녀양육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한부모가구는 보건 의료비(전국 가구의 54.5%), 사교육비(전국 가구의 56.1%), 교양오락비(전국 가구의 62.5%), 의복신발비(전국 가구의 69.1%)에서 매우 낮은 지출수준을 보였다. 특히, 자녀 1명당 보건 의료비는 월 1만 2천원으로, 이는 전국 가구의 54.5%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림 1. 가구유형별 자녀 1인당 월 평균 양육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다문화가구는 공교육비(전국 가구의 42.4%), 사교육비(전국 가구의 46.5%), 교양오락비(전국 가구의 68.8%), 주거 및 광열수도비(전국 가구의 68.9%) 순으로 전국 가구 대비 낮은 지출 수준을 보였다. 특히, 자녀 1명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월 7만원이며, 이는 전국 가구의 42.4% 수준으로 가장 낮다. 한편, 보건의료비는 자녀 1인당 월 3만 4천원으로, 이는 전국 가구의 평균보다도 높은 금액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다문화여성과 아동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을 의

미하며, 이에 대해 타 연구를 통해서도 밝혀진 바 있다.⁶⁾

기초수급가구를 살펴보면, 주거 및 광열수도비, 가구집기, 식료품비, 보건의료비 등 자녀의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지출 외에는 모든 지출을 최소화한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들 항목 외에는 지출액이 전국 가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⁷⁾. 항목별로 보면, 자녀 1인당 교양오락비 8천원(전국 가구의 25.0%), 사교육비 6만 4천원(전국 가구의 28.1%), 기타 소비 ·

표 1. 가구유형별 자녀 1인당 월 평균 양육비(세부항목별)

(단위: 만원, %, 명)

세부항목	전국 가구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		기초수급가구	
		비용	(전국가구 대비 %)	비용	(전국가구 대비 %)	비용	(전국가구 대비 %)
주거 및 광열수도비	7.4	8.9	(120.3)	5.1	(68.9)	6.4	(86.5)
가구집기, 가사용품비	1.8	1.4	(77.8)	1.5	(83.3)	0.9	(50.0)
교양오락비	3.2	2.0	(62.5)	2.2	(68.8)	0.8	(25.0)
교통통신비	12.7	11.0	(86.6)	9.8	(77.2)	5.4	(42.5)
기타 소비 · 비소비지출비	25.1	19.0	(75.7)	20.7	(82.5)	7.1	(28.3)
식료품비	20.4	18.2	(89.2)	18.1	(88.7)	14.7	(72.1)
의복 · 신발비	6.8	4.7	(69.1)	6.1	(89.7)	3.0	(44.1)
보건의료비	2.2	1.2	(54.5)	3.4	(154.5)	1.6	(72.7)
공교육비	16.5	13.4	(81.2)	7.0	(42.4)	5.5	(33.3)
사교육비	22.8	12.8	(56.1)	10.6	(46.5)	6.4	(28.1)
계	118.9	92.7	(78.0)	84.5	(71.1)	51.8	(43.6)
(분석아동수)	(12,745)	(766)		(134)		(15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6) 김혜련 외(2012)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결혼 후 첫 번째 임신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6.3개월로, 대부분 한국 정착 초기에 문화적, 언어적 장애를 겪는 상태에서 임신과 출산을 하고 이에 우울, 불안, 전반적 정신건강상태수준이 취약함을 보여주었음. 또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이주 정착 초기에 식생활 적응과 가족의 식생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자녀양육관련 지식이 부족하며, 이는 향후 자녀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 부족, 불충분한 영양섭취와 편식, 아동 구강건강상태 열악 등을 초래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김혜련 외(2012)의 「다문화가구 여성과 아동의 건강실태 및 건강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참조.

7) 공교육비는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지원으로 지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논외로 함.

비소비지출비 7만 1천원(전국 가구의 28.3%), 공교육비 5만 5천원(전국 가구의 33.3%), 교통통신비 5만 4천원(전국 가구의 42.5%), 의복·신발비 3만원(전국 가구의 44.1%)을 지출하고 있다.

한편, 사교육비는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 기초수급가구 모두에게 전국 가구 대비 지출액이 두 번째로 적은 항목으로, 한부모가구 12만 8천원(전국 가구의 56.1%), 다문화가구 10만 6천원(전국 가구의 46.5%), 기초수급가구 6만 4천원(전국 가구의 28.1%)이다. 즉, 이들 가구유형은 자녀교육에 대해 소극적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아동의 낮은 교육수준으로 이어질 것이다.

4. 가구유형 및 자녀연령별 교육비 및 교양오락비 지출 격차

자녀연령별 양육비를 가구유형별로 살펴보았다. 먼저, 다문화가구의 자녀양육비는 자녀가 아동기(6~11세)일 때 97만 7천원(동일 자녀연령대 전국 가구 자녀양육비의 92.8% 수준)으로 아동기 자녀 평균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나, 청소년기(12~17세,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월 평균 88만 1천원을 지출하면서 동일 자녀연령대 전국 가구 자녀양육비의 71.7%에 불과하였다. 한부모가구의 자녀양육비는 후기

청소년기⁸⁾(18세 이상)에 동일 자녀연령대 전국 가구 자녀양육비의 80.5%(129만 4천원)이었으며, 영유아기(0~5세)에는 동일 자녀연령대 전국 가구 자녀양육비의 62.7%(57만 7천원)수준에 불과하였다. 한부모가구의 자녀양육비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에서도 낮았는데, 각각 동일 자녀연령대 전국 가구 자녀양육비의 69.7%(73만 4천원), 74.4%(91만 4천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초수급가구의 자녀양육비도 다문화가구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자녀연령대 양육비 대비 비율이 청소년기에 타 발달단계보다 낮은 36.4%로 나타났으나, 이는 기초수급가구의 아동에게 제공되는 교육급여 등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

세부 항목인 교양오락비에 대한 지출은 자녀연령과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적었다. 이는 특히 기초수급가구에서 두드러졌는데,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후기 청소년기 모두 동일한 자녀연령대 평균 교양오락비의 1/4수준이었다. 한부모가구의 교양오락비도 마찬가지로 적게 나타났다. 이는 영유아기(동일 자녀연령대 전국 가구 자녀양육비의 50.0% 수준), 후기 청소년기(동일 자녀연령대 전국 가구 자녀양육비의 54.5% 수준), 아동기(동일 자녀연령대 전국 가구 자녀양육비의 55.2% 수준)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한편 다문화가구는 기초수급가구와 한부모가구보다 비교적 높으나, 동일 자녀연령대 전국 가구 자녀양육비 대비 70%수준으로 여전히

8) 이 시기는 청소년기와 성인기 사이인 10대 후반에서 20대 중후반까지를 일컫는 말로, 대학진학의 보편화 등으로 청소년기 이후 성인기 진입을 미루는 사회현상에 따라 생겨난 용어임(김연우(2010)의 Long-term effects of change in family structure on achievement during transition to adulthood 참조). 이 시기는 성인기로의 이행시기(또는 성인이행기, the transition period from adolescence to adulthood), 성인진입기(emerging adulthood) 등으로도 불림.

표 2. 자녀연령별 자녀 1인당 월 평균 자녀양육비 및 동일 자녀연령대 전국 가구 대비 비율

(단위: 만원, %, 명)

자녀연령	전국 가구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		기초수급가구	
		양육비	(동일 자녀연령대 전국 가구 대비 %)	양육비	(동일 자녀연령대 전국 가구 대비 %)	양육비	(동일 자녀연령대 전국 가구 대비 %)
0~5세	92.0	57.7	(62.7)	80.0	(87.0)	42.7	(46.4)
6~11세	105.3	73.4	(69.7)	97.7	(92.8)	50.0	(47.5)
12~17세	122.8	91.4	(74.4)	88.1	(71.7)	44.7	(36.4)
18세 이상	160.8	129.4	(80.5)	-	-	78.3	(48.7)
(분석아동수)	(12,704)	(760)		(134)		(158)	

주: 다문화가구의 18세 이상 자녀는 케이스 수 부족(10케이스 미만)로 분석결과와 신뢰성이 낮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표 3. 자녀연령별 자녀 1인당 월 평균 교양오락비

(단위: 만원, %, 명)

자녀연령	전국 가구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		기초수급가구	
		교양 오락비	(동일 자녀연령대 전국 가구 대비 %)	교양 오락비	(동일 자녀연령대 전국 가구 대비 %)	교양 오락비	(동일 자녀연령대 전국 가구 대비 %)
0~5세	3.0	1.5	(50.0)	2.2	(73.3)	0.8	(26.7)
6~11세	2.9	1.6	(55.2)	2.2	(75.9)	0.8	(27.6)
12~17세	2.9	2.0	(69.0)	2.1	(72.4)	0.7	(24.1)
18세 이상	4.4	2.4	(54.5)	-	-	1.2	(27.3)
(분석아동수)	(12,745)	(766)		(134)		(158)	

주: 다문화가구의 18세 이상 자녀는 케이스 수 부족(10케이스 미만)으로 분석결과와 신뢰성이 낮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적은 지출규모를 보였다.

자녀연령별 공교육비는 한부모가구 아동의 영유아기(동일 자녀연령대 전국 가구 자녀양육비의 14.1% 수준), 아동기(동일 자녀연령대 전국 가구 자녀양육비의 57.1% 수준), 다문화가구의 아동기(동일 자녀연령대 전국 가구 자녀양육비의 66.7% 수준)에서 매우 적게 나타났다. 특히, 한부모가구는 가구주인 한부모의 경제적 활

동에 따른 돌봄자의 부재로 양부모가족보다 아동돌봄서비스를 더 필요로 한다. 하지만 현재 한부모가구의 공교육비 지출액은 이와 다르게 동일 자녀연령대 전국 가구 자녀양육비보다 적으며, 심지어 영유아기의 공교육비는 기초수급가구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이 같은 경향은 사교육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한부모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영유아기(동일 자녀연령대

전국 가구 자녀양육비의 53.5% 수준, 아동기 (동일 자녀연령대 전국 가구 자녀양육비의 52.0% 수준), 청소년기(동일 자녀연령대 전국 가구 자녀양육비의 46.9% 수준), 후기 청소년기 (동일 자녀연령대 전국 가구 자녀양육비의 61.4% 수준)에서 모두 동일 자녀연령대 전국 가

구 자녀양육비의 절반수준이었다. 이 같이 한부모가구의 영유아기 및 아동기 교육비 지출이 적다는 것은 한부모가구의 아동이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사교육비는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 기초수급가구 모두 동일 자녀연령대 전국 가구 자

표 4. 자녀연령별 자녀 1인당 월 평균 공교육비

(단위: 만원, %, 명)

자녀연령	전국 가구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		기초수급가구 ⁹⁾	
		공교육비	(동일 자녀연령대 전국 가구 대비 %)	공교육비	(동일 자녀연령대 전국 가구 대비 %)	공교육비	(동일 자녀연령대 전국 가구 대비 %)
0~5세	6.4	0.9	(14.1)	5.7	(89.1)	2.4	(37.5)
6~11세	4.2	2.4	(57.1)	2.8	(66.7)	1.1	(26.2)
12~17세	10.6	8.3	(78.3)	13.4	(126.4)	1.5	(14.2)
18세 이상	53.9	40.1	(74.4)	-	-	23.7	(44.0)
(분석아동수)	(12,707)	(760)		(134)		(158)	

주: 다문화가구의 18세 이상 자녀는 케이스 수 부족(10케이스 미만)으로 분석결과의 신뢰성이 낮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표 5. 자녀연령별 자녀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단위: 만원, %, 명)

자녀연령	전국 가구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		기초수급가구	
		사교육비	(동일 자녀연령대 전국 가구 대비 %)	사교육비	(동일 자녀연령대 전국 가구 대비 %)	사교육비	(동일 자녀연령대 전국 가구 대비 %)
0~5세	11.4	6.1	(53.5)	8.1	(71.1)	4.3	(37.7)
6~11세	30.0	15.6	(52.0)	21.6	(72.0)	10.2	(34.0)
12~17세	35.0	16.4	(46.9)	14.1	(40.3)	7.0	(20.0)
18세 이상	8.8	5.4	(61.4)	-	-	1.3	(14.8)
(분석아동수)	(12,707)	(760)		(134)		(158)	

주: 다문화가구의 18세 이상 자녀는 케이스 수 부족(10케이스 미만)으로 분석결과의 신뢰성이 낮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9)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초수급가구는 공교육비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회적 지원을 받기 때문에, 단순히 지출액만으로 전국 가구의 평균액과 비교하기 어려움.

녀양육비액보다 매우 적으며, 이는 특히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전 연령(동일 자녀연령대 전국 가구 자녀양육비의 14.8~37.7% 수준), 한부모가구의 청소년기(동일 자녀연령대 전국 가구 자녀양육비의 46.9% 수준), 다문화가구의 청소년기(동일 자녀연령대 전국 가구 자녀양육비의 40.3% 수준)에서 두드러졌다. 이들 가족의 사교육비는 무엇보다 교육성취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와 후기 청소년기에 낮은 비율을 보이며, 다문화가구와 기초수급가구의 청소년기 사교육비는 심지어 아동기보다 적은 지출액을 보였다. 또한 기초수급가구의 사교육비는 동일 자녀연령대 전국 가구 자녀양육비액은 물론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기의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지출이 매우 적다는 점은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 기초수급가구의 아동

이 향후 낮은 교육수준을 가질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5. 가구유형 및 소득계층별 교육비 및 교양오락비 지출 격차^{10) 11)}

소득계층별 자녀양육비 지출 실태를 살펴본다. 빈곤층의 자녀양육비는 56만 3천원으로 전국 가구(118만 9천원)의 절반 수준이다. 심지어 빈곤 한부모가구는 이보다도 적은 53만 3천원(동일 소득계층 전국 가구의 94.7%)을 자녀양육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즉, 같은 빈곤가구일 지라도 빈곤 한부모가구의 자녀양육비는 더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차상위 한부모가구의 자녀양육비는 51만 6천원(동일 소득계층 전국 가구의 96.1%)으로,

표 6. 소득계층별 자녀 1인당 월 평균 자녀양육비 및 동일 소득계층 전국 가구 대비 비율

(단위: 만원, %, 명)

소득계층	전국 가구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	
		양육비	(동일 소득계층 전국 가구 대비 %)	양육비	(동일 소득계층 전국 가구 대비 %)
빈곤층	56.34	53.34	(94.7)	-	-
차상위	53.74	51.62	(96.1)	-	-
차상위 초과(최저생계비 120%+)	121.78	105.83	(86.9)	90.10	(74.0)
(분석아동수)	(12,669)	(758)		(132)	

주: 다문화가구 중 빈곤층과 차상위가구의 자녀는 케이스 수 부족(10케이스 미만)으로 분석결과와 신뢰성이 낮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10) 본 내용의 목적은 같은 소득계층 간, 특히 빈곤층간 자녀양육비 차이를 살펴보는 데 있기 때문에,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이미 빈곤층으로 정의된 기초수급가구는 본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11) 본 고에서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빈곤층'을 최저생계비 미만, '차상위층'을 최저생계비 100~120%, '차상위초과층'을 최저생계비 120% 초과로 구분하여 연구결과를 제시하였음.

빈곤층과 마찬가지로 차상위 한부모가구의 자녀양육비 지출은 동일 소득계층의 평균값보다 더 적음을 알 수 있다.

차상위 초과 소득계층을 살펴보면, 차상위 초과 한부모가구의 자녀양육비는 105만 8천원(동일 소득계층 전국 가구의 86.9%), 차상위 초과 다문화가구의 자녀양육비는 90만 1천원(동일 소득계층 전국 가구의 74.0%)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체적으로 한부모가구와 다문화가구의 자녀양육비가 동일한 소득계층 전국 가구의 평균치보다도 낮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세부항목인 교양오락비를 살펴보면, 전체 빈곤층 가구는 1만원이며, 빈곤 한부모가구는 이보다 월 5백원 많은 1만 5백원으로, 이는 여전히 전국 가구의 32.8%에 불과한 금액이다.

차상위가구의 월 평균 교양오락비는 9천 4백 원이며, 동일한 소득계층인 차상위 한부모가구는 월 평균 8천 2천원이었다. 즉, 차상위 한부모가구의 교양오락비는 동일한 소득계층 전국 가구의 87.2% 정도로 낮게 나타났다.

차상위 초과 가구의 교양오락비는 3만 3천원

으로 이는 전국 가구의 평균(16만 5천원)보다 다소 높다(전국 가구의 104.4%). 반면, 차상위 초과 한부모가구와 다문화가구의 교양오락비는 동일 소득계층 뿐만 아니라 전국 가구의 평균치보다도 낮았다. 차상위 초과 한부모가구의 교양오락비는 2만 2천 9백원으로, 이는 전국 가구의 71.6%, 동일 소득계층 전국 가구의 68.6% 수준이다. 다문화가구의 교양오락비는 2만 2천 8백원(전국 가구의 71.3%, 동일 소득계층 전국 가구의 68.3%)으로 한부모가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와 같이 한부모가구와 다문화가구의 교양오락비 지출수준은 동일 소득계층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교육비(공교육비와 사교육비의 합)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빈곤가구는 교육비로 15만 6천원을 지출한다. 빈곤 한부모가구의 교육비는 12만 9천원으로, 이는 동일한 소득계층 전국 가구의 82.7% 수준이다. 이와 같이 빈곤층 중에서도 빈곤 한부모가구의 교육비 지출수준이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차상위가구의 교육비는 13만 3천원이며, 동

표 7. 소득계층별 자녀 1인당 월 평균 교양오락비

(단위: 만원, %, 명)

소득계층	전국 가구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	
		교양오락비	(동일 소득계층 전국 가구 대비 %)	교양오락비	(동일 소득계층 전국 가구 대비 %)
빈곤층	1.00	1.05	(105.0)	-	-
차상위	0.94	0.82	(87.2)	-	-
차상위 초과(최저생계비 120%+)	3.34	2.29	(68.6)	2.28	(68.3)
(분석아동수)	(12,704)	(555)		(132)	

주: 다문화가구 중 빈곤층과 차상위가구의 자녀는 케이스 수 부족(10케이스 미만)으로 분석결과와 신뢰성이 낮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일한 소득계층인 차상위 한부모가구는 교육비로 13만 4천원(전국 가구 34.0%, 동일한 소득계층 전국 가구의 100.8%)을 지출하였다.

차상위 초과 가구의 교육비는 40만 3천원이다. 가구유형별로 살펴보면, 차상위 초과 한부모가구는 30만 4천원(동일한 소득계층 전국 가구의 75.6%)이며, 차상위 초과 다문화가구는 20만 6천원(동일한 소득계층 전국 가구의 51.2%)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동일한 소득계층일지라도 한부모가구와 다문화가구의 교육비 지출 수준은 상대적으로 타 가구보다 낮음을 보여준다. 특히, 한부모가구는 생계를 책임지는 한부모가 경제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동돌봄서비스를 보다 더 필요로 하며, 이에 교육비 지출수준은 양부모가구보다 오히려 높아야 한다. 하지만 차상위 한부모가구는 타 차상위가구와 유사한 수준의 교육비를 지출할 뿐만 아니라, 빈곤층 한부모가구와 차상위 초과 한부모가구는 심지어 같은 소득계층의 가구보다도 적게 지출하고 있었다. 이 같은 낮은 교육비 지출은 향후 이들

가구의 아동이 낮은 교육성취도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의미한다.

6. 정책제언

본고는 가구유형별 자녀양육비 지출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아동의 성공적 발달을 위해 충분한 경제적 투입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 기초수급가구는 전국 가구 평균치보다 낮은 자녀양육비를 지출하며, 특히 기초수급가구는 전체 평균치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또한 같은 소득계층일지라도 이들 가구유형의 자녀양육비 지출수준이 더 낮았다. 뿐만 아니라 빈곤층 가구보다 차상위가구의 자녀양육비 지출수준이 더 낮게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 기초수급가구의 교양 오락비는 자녀연령대에 상관없이 적었으며, 이 같은 경향은 특히 차상위가구와 차상위 초과 가

표 8. 소득계층별 자녀 1인당 월 평균 교육비(공교육비+사교육비)

(단위: 만원, %, 명)

소득계층	전국 가구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	
		교육비	(동일 소득계층 전국 가구 대비 %)	교육비	(동일 소득계층 전국 가구 대비 %)
빈곤층	15.64	12.93	(82.7)	-	-
차상위	13.26	13.37	(100.8)	-	-
차상위 초과(최저생계비 120%+)	40.28	30.44	(75.6)	20.63	(51.2)
(분석아동수)	(12,670)	(549)		(132)	

주: 다문화가구 중 빈곤층과 차상위가구의 자녀는 케이스 수 부족(10케이스 미만)으로 분석결과와 신뢰성이 낮아 제시하지 않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구에게서 두드러졌다. 둘째, 전체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 기초수급가구의 교육비(공교육비와 사교육비의 합)는 청소년기에 특히 적었다. 이는 이들 가구가 받는 공교육비 관련 다양한 지원을 고려하여도 마찬가지로 낮은 수준이다. 청소년기는 교육성취도를 결정하는 주요한 시기로, 이 시기의 적은 교육비 지출은 향후 대학 진학 등 교육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가구유형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부모가구를 살펴보면, 첫째 한부모가구의 양육비는 자녀가 특히 영유아기, 아동기 때 전체 평균치보다 적었다. 둘째, 모든 소득계층의 한부모가구가 동일한 소득계층의 전국 가구보다도 낮은 자녀양육비를 보였다. 즉, 같은 빈곤가구일지라도 한부모가구일 때 자녀양육비 지출수준이 더 낮았다. 셋째, 한부모가구의 영유아기 교육비(공교육비와 사교육비의 합)는 동일 자녀연령대 전국 가구 교육비뿐만 아니라 기초수급가구보다도 적었다. 한부모가구는 한부모의 경제활동으로 근무시간동안 아동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한부모가구의 낮은 교육비 지출 수준을 보인 것은 한부모가구의 영유아가 적정 수준의 돌봄을 받지 못함을 시사한다. 다문화가구 자녀양육비 관련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문화가구의 자녀양육비는 특히 영유아기와 청소년기에 적게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가구는 같은 소득계층인 가구 중에서도 낮은 자녀양육비를 보였는데, 이는 특히 공교육비와 사교육비에서 두드러졌다. 마지막으로, 기초수

급가구는 자녀연령대와 상관없이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지출 외에는 모든 지출을 최소화하였으며, 생계유지에 직결되지 않는 모든 항목에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출수준을 보였다.

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한다.

첫째, 한부모가구와 다문화가구의 지원기준, 특히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서비스를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결혼이주여성인 한국 정착 초기에 문화적, 언어적 장애를 겪는 상태에서 임신과 출산을 하기 때문에, 자녀양육방법, 한국의 식생활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¹²⁾ 즉, 동일한 소득계층일지라도 다문화가구는 비다문화가구보다 자녀양육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 이 같은 상황은 한부모가구도 마찬가지다. 한부모가구는 양부모가구보다 성인가구의 수가 적고, 취업 한부모는 근무시간 동안의 아동돌봄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자녀양육비를 지출해야 한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구와 한부모가구는 자녀양육관련 서비스이용 등을 위해 더 많은 양육비 지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자녀양육비는 오히려 동일 소득계층보다도 적게 나타났다. 이에 한부모가구와 다문화가구가 겪는 부가적 어려움을 반영하고 현재의 낮은 자녀양육비 지출 실태를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 기초수급가구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 기

12) 김혜련 외(2012). 다문화가구 여성과 아동의 건강실태 및 건강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수급가구의 교육비는 동일연령의 아동, 동일 소득계층의 아동보다도 적으며, 이 같은 낮은 교육비 지출은 향후 교육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교육 지원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여, 아동이 가족배경과 상관없이 충분한 양과 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 기초수급가구의 문화생활 등 여가활동 지원서비스 기준을 중산층까지로 확대해야 한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여행바우처 등 다양한 여가활동 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이는 모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 차상위 초과 가구도 여가활동비를 지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여가활동 지원서비스의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차상위가구의 자녀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정부의 다양한 아동 서비스는 기초수급가구, 즉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차상위가구의 자녀양육비 지출수준이 빈곤층보다 낮다는 본 연구결과는 차상위가구의 자녀에 대한 다양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보건복지